



이건 정말 중요한 지표

Economist 안소은 02)6915-5657 ase331@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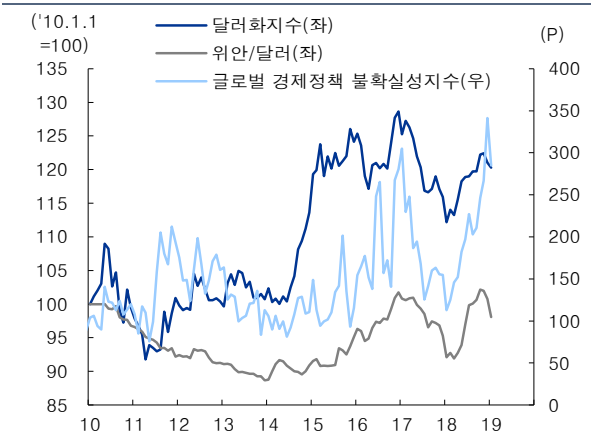
정용택 02)6915-5701 ytjeong0815@ibks.com

위안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정될까?

Focus on Week

- 마-중 90일간의 무역협상 기한 종료를 앞두고 양해각서 체결과 무역불균형 해소 조치에 대한 논의 등이 보도됨. 이전과 달리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만큼 낙관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위안화 가치 안정화를 요구했다는 것. 중국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위안화 약세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중국 안팎의 여러 상황들을 감안할 때 미국이 원하는 위안화 흐름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기본적으로 각종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강세가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 지난해부터 누적된 관세와 구조조정 부담으로 중국 경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도 위안화 가치를 낮추는 요인. 이러한 경기 상황으로 인해 정책금리 인하가 필요한 중국과 달리 미국은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마-중 금리차 축소와 외국인 자금의 중국시장 이탈 가능성도 위험 요인임

중국 안팎의 환경, 미국이 원하는 위안화 강세가 어려운 이유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Weekly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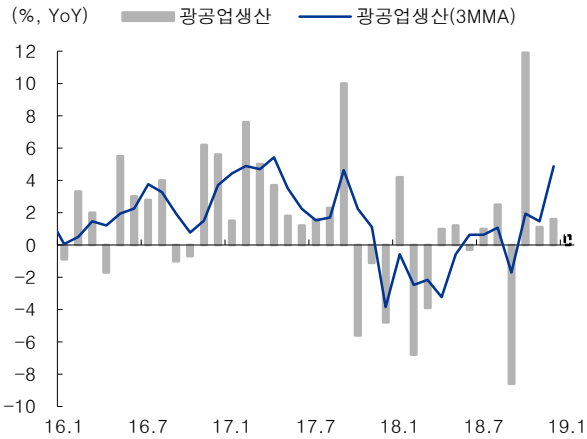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예상치	이전치	비고
2.26	미국	12월	주택착공 MoM	-0.5%	3.2%	겨울철 건축 환경 악화와 건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감소 예상
	미국	12월	건축허가 MoM	-2.9%	4.5%	주택 수요에 대한 우려와 비용 부담으로 감소 전환 예상
	미국	12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	0.4%	주택 매매 약화로 주택가격 상승폭 다소 축소됐을 가능성
	미국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124.2	120.2	정부 섀다운 해소와 무역협상 기대 등으로 소비심리 반등 전망
2.27	미국	1월	잠정주택매매 MoM	-	-2.2%	정부 섀다운과 경기 둔화 우려로 감소세 지속됐을 듯
	미국	12월	제조업수주 MoM	1.4%	-0.6%	운송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수주 증가 전환 예상
2.28	한국	1월	광공업생산 YoY	0.6%	1.6%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 및 내수 부진으로 증가폭 축소 예상
	중국	2월	통계청 제조업 PMI	49.6	49.5	춘절로 인한 가동 중단 및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낮은 수준 유지
	미국	4Q	GDP 연율 QoQ 속보치	2.5%	3.4%	12월 소매판매 둔화로 컨센서스 하향된 가운데 민간소비에 주목
3.1	한국	2월	수출 YoY	-10.4%	-5.8%	중국 춘절 연휴 및 수출단가 하락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한국	2월	수입 YoY	-12.7%	-1.7%	조업일수 감소와 유가 등 단기 하락으로 감소폭 확대 전망
	한국	2월	무역수지	34.6억달러	12.9억달러	수출입 감소에도 무역수지 흑자는 유지됐을 것
	중국	2월	Caixin 제조업 PMI	48.5	48.3	정부 부양책에도 무역분쟁 우려, 내수 부진으로 기준점 회복 지속
	유로존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	1.4%	연초 유가 반등과 유로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반등 예상
	미국	12-1월	개인소득 MoM	0.3%	(11월)0.2%	시간당 평균 임금의 완만한 상승에 힘입어 소득 증가세 지속
	미국	12월	개인소비 MoM	0.3%	0.4%	연말 쇼핑시즌에도 정부 섀다운 영향 혼재돼 증가세 약화 가능
	미국	2월	ISM 제조업지수	56.2	56.6	무역 불안과 쇼핑시즌 이후 내수 약화로 제조업 체감경기 하락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

날짜	국가	이벤트	비고
2.27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영국 메이 총리는 EU와의 합의 시도하되, 실패 시 향후 계획에 대한 결의안 제출 예정
2.28	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현 수준(1.75%)으로 동결 예상. 대내외 경기 우려 속에 완화된 시그널 유무에 주목
3.1	마-중	90일 간 무역협상 기한 종료	21~22일 마-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중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

Chart of the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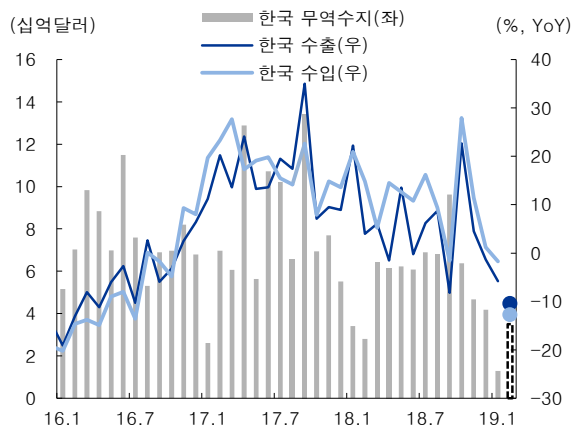
한국 1월 광공업생산 YoY 0.6% 전망



자료: 통계청, IBK투자증권

- 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폭 축소 예상
- 2월 초 설 연휴를 대비한 일부 업종의 조기 생산 영향과 1월 수출 물량 증가 등을 바탕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 자동차 부문의 경우 신차 효과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9.8% 증가한 바 있음
- 다만 글로벌 교역 환경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생산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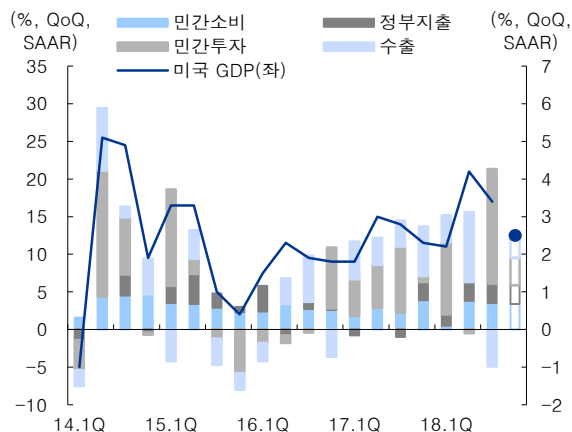
한국 2월 수출 YoY -10.4%, 수입 -12.7%, 무역수지 35억달러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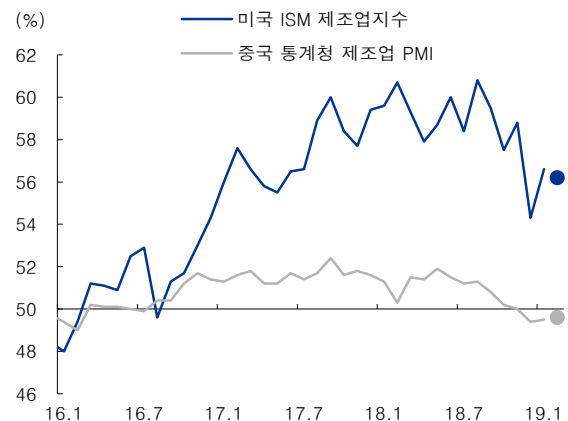
- 2월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됐을 전망
- 전년 대비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중국의 춘절 연휴가 수출입 감소의 주 요인일 것으로 판단.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등 수출 단가 하락 영향도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 다만 수출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을 것
-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제조업 경기 악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관련 불확실성 등은 꾸준히 수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
- 2월 수출입 감소에도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 4분기 GDP, 최근 컨센서스 하향의 원인인 민간소비에 주목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미-중 2월 제조업 PMI, 교역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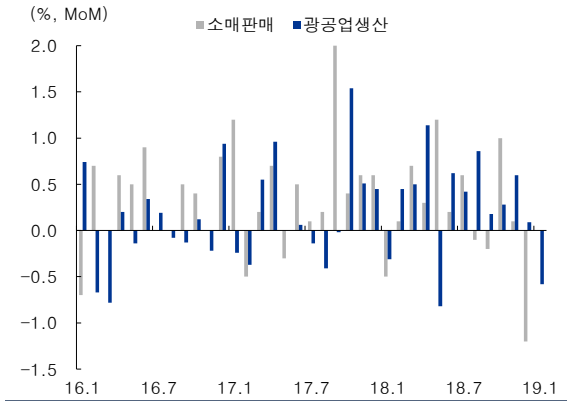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Weekly Review

- 미국 12월 소매판매와 1월 광공업생산은 시장 예상을 하회하며 급격히 악화됨.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월 GDP 성장을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
- 12월 소매판매는 자동차와 전자재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감소했는데, 연말 쇼핑시즌 효과가 기대됐던 백화점과 온라인 판매도 크게 악화됨. 다만 연방정부 셧다운과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감안해도 감소 정도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됨. 향후 지표 개정이나 4분기 GDP 중 민간소비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1월 광공업생산은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함. 주된 요인은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감소였는데, 해당 부문의 전월 생산이 강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임.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 생산도 전반적으로 부진해 무역분쟁 영향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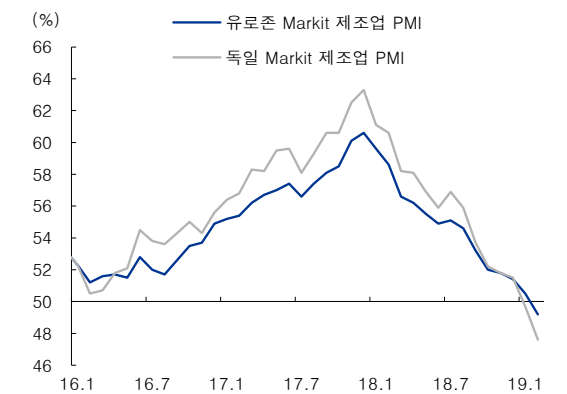
- 유럽 2월 제조업 PMI는 추가로 하락함. 독일은 2개월 연속 기준점(50)을 하회했으며, 유로존도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던 2013년 중반 이후 처음으로 위축국면에 진입함
- 유로존 제조업 PMI를 중심으로 보면, 하위 항목 중 생산과 신규주문, 신규수출주문 등이 모두 하락함. 글로벌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현실화, 유럽 자동차 산업 부진, 정치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이 대내외 수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 반면 고용 항목은 소폭 반등해 확장국면을 유지하고 있음. 대내외 이슈로 소비심리는 악화됐지만 소비여력을 좌우하는 고용 환경은 양호한 상황
- 한편 유로존과 독일 모두에서 서비스업 PMI는 다소 큰 폭으로 개선됨.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대외 불안에 따른 제조업 부진을 서비스업이 일부 상쇄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올해 전반적인 유럽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미국 12월 소비와 1월 생산 증가율 급락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유럽 2월 제조업 PMI, 위축국면 진입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날짜	국가	기간	경제지표	발표치	예상치	이전치	전기 대비 변동
2.15	미국	1월	광공업생산 MoM	-0.6%	0.1%	0.1%	▼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95.5	93.7	91.2	▲
2.19	유로존	2월	ZEW 경기전망	-16.6	-	-20.9	▲
	미국	2월	NAHB 주택시장지수	62	59	58	▲
2.20	유로존	2월	소비자기대지수	-7.4	-7.7	-7.9	▲
2.21	유로존	2월	Markit 제조업 PMI	49.2	50.3	50.5	▼
	미국	12월	내구재 주문 MoM	1.2%	1.7%	1.0%	▲
	미국	2월	Markit 제조업 PMI	53.7	54.8	54.9	▼
	미국	1월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MoM	-0.1%	0.1%	0.0%	▼
	미국	1월	기준주택매매 MoM	-1.2%	0.2%	-4.0%	▲

* 한국 경제지표의 예상치는 당사 추정치이고, 여타 국가는 Bloomberg 컨센서스입니다